

偶像 問題에 關한 理論과 實際 (五)

맑스主義者의 一顧를 要함

權九玄

또 그는 어느 對話 中에 말하되 『오늘날 所謂 天才의 누구를 勿論하고 그가 著作한 書冊이나 作品에 含有된 훌륭한 모든 選擇에 그의 理知가 얼마나 한 貢獻을 하았는지 좀 못고심다...』고 하여써 은근히 著書의 創作品까지라도 그것이 決코 作者 個人의 獨創이 아니라 累代 複數 人間의 所産인 것을 指示하였다.

엇겟든 人類社會의 모든 社會的, 階級的 業果란 것은 그의 善否를 莫論하고 그 社會 그 階級 全員の 所産이니만치 全員の 所有가 아니면 아니 될 것이며, 同時에 그에 對한 賞과 罰도 또한 全員이 함께 맞지 안흐면 아니 될 것이다. 더욱이 個人崇拜와 함께 個人의 要點을 否定하며 自由, 平等의 ×× 生活을 目標로 하는 社會運動에 잇서서라!

맑스[마르크스]主義 學徒들은 맑스라는 偉대한 人物이 出生하였음으로써 科學的 社會主義가 建設되고 레-닌이라는 巨人이엇슴으로 말미암아 露西亞의 革命이遂行된 것처럼 思料하는지 모르나, 이것은 맞치 古談 超人的 勇士가 出世하여 天下를 平定하였다고 그를 敬拜, 讚嘆함과 가튼 愚痴한 觀念이 아니면 아니 된다.

勿論 누구나 레-닌이라는 맑스의 卓越을 否認하지는 안는다. 그러나 레-닌이나 맑스가 업섯던들 저와 가튼 偉대한 事業도 遂行치 못하였스리라고는 더욱이 辨證的 唯物論者인 『맑기스트[마르크시스트]』로서는 思惟치 안할 事實이 아닌가?

如斯함에도 不拘하고 맑스나 레-닌에게 特別한 尊敬과 崇拜의 心情을 表하여써 그의 氏名을 竹帛에까지 登錄함과 如함은 自家 理論上 理論的 撞着을 犯함은 勿論이오, 既成觀念의 最大惡인 頭目, 首領, 長 等 云謂하는 所謂 巨頭觀念에 支配된 中心 歸衆의 偶像崇拜가 아니고 무엇이나?

五

權力の 把握과 名聲의 顯揚에 對한 愛着과 慾望은 首領과 部下라는 差別觀에서부터 必然的으로 發生하는 罣르조아 既成觀念인 것을 看破한 다음이면 三民主義에 共鳴하는 徒輩가 孫中山을 崇拜한다던가 基督을 救世主라 하여써 絶對信仰을 바치는 크리스찬 등과 如한 愚稚한 觀念을 脫却치 안하면 안이 된다.

맞찬가지의 意味下에서 筆者는 個人的 死亡에 對하여 社會葬이라던가 團體葬이라는 事大한 名目을 부치여써 行하는 葬儀까지도 理論上 排擊하여 마지안는 바이다.